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c.net

주일오전설교 | 사도 바울의 기원과 감사

[살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이다(행 15:22).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로서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행 16:1-3; 17:14; 18:5; 19:22; 20:4).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설립되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세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하였다(2, 3절). 그들의 전도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4절).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창조자의 의미이다. 이사야 64:8,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둘째는 구원자의 의미이다. 신명기 32:6, “우 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사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야고보서 1:18, “그가 그 조물[괴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셋째는 보호자와 양육자와 공급자의 의미이다.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이고 또 성도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도 보인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이며 식구들이다.

신약성경에서 주로 예수께 사용된 ‘주리’는 명칭은 하나님의 의미로 약 667회 사용되었다. 구약의 ‘여호

와’라는 명칭은 헬라이어 70인역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되었다. ‘주리’는 단어는 온 세상의 주인, 왕, 통치자, 즉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크신 하나님’(딤후 2:10)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요일 5:20).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구원이 연합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였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구원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존귀한 특권이며 놀라운 행복이다.

[2절] **하나님 [우리(전통분문)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매번 나오는 의미심장한 기도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은 죄사함과 중생(重生)과 칭의(稱義) 뿐 아니라, 계속적 용서와 성화와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평안’은 죄사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비롯하여,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및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었다. ‘더욱 자란다’는 원어는 ‘크게 자란다’는 뜻이다(KJV, NASB).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또 성경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단지 어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과 인격적 신뢰이다. 그 교리적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마 13장). 땅에 심긴 씨는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믿음도 자란다.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 힘들지만, 다 자란 나무는 강한 바람도 잘 견디어 낸다. 그것은 깊이 내린 뿌리와 굵어진 나무 등치와 가지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으로 단련되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된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 전서 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전 건립 혹은 교회 건립의 비유로도 표현된다. 성전의 건립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숙 4:6).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물론 인간편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성경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눅 1:1-4; 롬 10:17; 딤후 3:14).

두 번째 감사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풍성하게 실천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 표현된다. 사랑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히 10:24-25). 또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였다(행 2:44-45). 구제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 행위이다.

[4절] 그리고 그래서 너희의 잠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 그들을 자랑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딤후 3:12). 환난의 때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계 13:10; 14:2). 주께서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후 4:17).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

을 잘 참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누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우리편에서도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의 공적 모임 참석, 순종 등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심방하고 위로 격려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행복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잘 견디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새 예루살렘 성

[계 21:9-11]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는 구원 얻은 성도들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은 상태에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교인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처녀에 비유하였고(고후 11:2),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교하면서 한 몸 됨을 강조하였다(엡 5:32).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았다. 이것은 어린양의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성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성임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11:10은 그 성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하나님께서 건축하시오] 만드신 이인[인],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하였다.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가리켰는가?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실제의 어떤 도시로 보지만, 아마 단순히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헨드릭슨, 렌스키).

그 성은 한마디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다. 구원

받은 성도들의 영화롭게 된 상태는 죄 없는 상태이며 물론 그들이 들어갈 천국도 죄가 없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을 것이다. 그것은 성도들의 최종 상태가 심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것이다.

[12-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열두 문에 있는 열두 천사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다. 그 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성이다. 또 열두 문에는 각각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의 수를 상징할 것이다(계 7:4-8).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열두 문에 열두 지파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을을 나타낼 것이다. 동서남북에 세 개씩의 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 세계로부터 들어옴을 상징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지만(고전 3:11), 그는 그의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다(엡 2:20).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

[15-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져드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長廣)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금 갈대로 척량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너비와 길이가 같고 높이도 같다. 그 길이는 12,000스다디온(12x1000스다디온)이다. 1스다디온은 약 184미터이며 12,000스다디온은 약 2,210킬로미터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쪽 끝에서 경상남도 남쪽 끝까지 거리의 약 2배가 조금 넘는다. 그러나 12는 ‘완전’을 나타내는 수이며 1000은 ‘충만’을 나타내는 수라고 보고,

12,000스다디온은 14만 4천처럼(계 7:4-9)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완전충만한 수의 영혼들을 상징할 것이다. 그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약 65미터)이지만, 그것도 12x12규빗, 즉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완전한 높이라는 뜻일 것이다.

[18-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紫晶)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성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하고 영광스럽다. 그것은 성도들이 장차 가질 영광을 보인다. 그것은 성도들의 부활체의 영광이며 천국의 영광이다. 특히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성곽의 기초석 위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14절).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들이 각각 받은 은혜가 달랐지만, 귀한 하나님의 보배들이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신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의복의 어깨 견대의 두 호마노 보석과 같고(출 28:9-12) 가슴의 판결홍패에 네 줄로 물린 열두 보석과 같다(출 28:17-21). 그것들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들이 새겨졌었다. 또 그들은 주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44-46절).

[22-27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는 것들이 있었다. 첫째로,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치 않다. 둘째로,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 그것들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 직접 비취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광은 해와 달의 비침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셋째로, 밤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을 항상 대낮같이 밝게 만들 것이며 따라서 성문들을 닫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넷째로, 죄인들이 없다.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회개치 않은 자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으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음받고 중생한 자들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 속죄신앙은 그 성에 들어가는 출입증과 같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였고(엡 2:20), 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전해)들은 배을 지키라”고 말하였다(살후 2:15).

둘째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입을 부활체의 영광이요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이다(롬 8:30; 빌 3:21).

셋째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고 성경의 교훈만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믿고 소망하며 그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수요일 설교

시온의 딸들에게

[사 3:13-2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國門)심판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 . .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며)뚱뚱이면서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일어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그는 시온의 딸들의 죄악도 지적하시며 그들의 교만과 음란에 대해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이사야는 시온의 딸들의 장신구들이나 옷들을 열거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24-26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했고 백성을 짓밟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

했다.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사랑과 선을 실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째로,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늘인 목으로 다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 잠언 6:16-17,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잠언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은 마귀의 죄라고 생각된다(딤후 3:6).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의지하는 죄악이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간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성도의 기본적 덕은 겸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약 4:6).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곧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겸손의 극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시온의 딸들은 정을 통하는 눈, 남을 유혹하는 눈으로 다녔다.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마 5:28). 음란은 자기 몸으로 범죄하는 죄이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했다(고전 6:18).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살전 4:3).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음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시온의 딸들은 뚱뚱이면서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었고 사치스럽게 온갖 장신구들을 갖추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치를 미워하신다. 성도의 덕은 검소와 절제이다. 바울은 여인들이 아담한 옷 곧 단정한 옷을 입으며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내면적 단장, 선행의 단장을 힘쓰라고 교훈하였다(딤후 2:9-10). 우리는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